도하아시안게임 개막 D-48

❷ 숫자로 풀어본 도하대회

1-걸프연안국 중 첫 개최

2-체스·트라이애슬론 채택
39-대회 종목 수 '역대 최다'
29만㎡-돔구장 '어스파이어' 면적

오는 12월1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15회 아시안게임은 아랍권 중동에서 처음 개최되는 아시아인의 축제다. 카타르 정부는 28억 달러라는 엄청난 재원을 대회 준비에 쏟아부었다.

도하 아시안게임에 결부된 여러 숫자의 의미를 풀어본다.

▲1 : 걸프연안국에서 처음 열리는 아시안게임. 최초로 대회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았고 HDTV 방식으로 방송 화면을 송출한다.

▲2 : 처음 채택된 종목의 수. 체스와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3.65 : 카타르 화폐 리얄(QPR)의 대 달러 환율.

▲15 : 1951년 인도 뉴델리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아시안게임이 15회째를 맞았다. 이번 대회 개최 기간도 15일.

▲39 : 대회 종목 수. 역대 최다.

▲45 : 대회 참가국 수.

▲1천 : 12월1일 개막식에는 1천㎡의 황금 융단이 선보일 예정이다.

▲2천 : 방송 중계 예정 시간의 합계.

▲2010 : 차기 아시안게임인 2010년 대회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다. 2014년 대회 개최권을 놓고는 인천과 인도 뉴델리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4천400 : 이번 대회를 취재할 각국의 통신.신문.방송 취재단 규모.

▲1만500 : 39개국 출전 선수단 규모.

▲1만7천 : 카타르 대회 조직위원회가 전 세계 76개국에서 모집한 자원봉사자의 수.

▲5만 : 이번 대회의 성화 봉송 거리 합계는 5만㎞. 중동에서 아시아를 두 바퀴 돌아 역대 최장이다.

▲29만 : 사이클, 복싱, 체조 등 7개 종목이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돔 경기장 '어스파이어'의 면적은 29만㎡로 상암경기장(21만㎡)보다 넓다.

▲1천150만 : 대회 기간이 겨울이지만 열사의 나라이다 보니 이번 대회 기간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수병의 수가 이 정도 규모란다.

▲28억 : 카타르 정부가 이번 대회에 투입한 재원은 28억달러(2조6천574억원).

■ 삼성월드챔피언십 초청선수 위성미 인터뷰

"내년에도 남자대회 계속 출전"

"지난해 실수를 한 뒤 드롭 연습을 많이 했어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삼성월드챔피언십을 앞두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데저트의 빅혼골프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위성미(17·나이키골프)는 여전히 자신만만하고 재치 넘치는 말솜씨를 과시했다.

이번 대회 출전을 끝으로 사실상 프로 원년 LPGA 투어를 마감하는 미셸 위는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프로 첫 시즌을 보냈다"면서 "내년에도 남자대회 도전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미셸 위는 또 남자대회 출전에 대한 세간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나한테 관심이 많다는 뜻이니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이제 이 대회만 끝나면 LPGA 투어에서 프로 선수로 1년을 마감하게 된다. 소감은?

▲시즌 마지막 대회라서 정말 기대된다. 1년이 이렇게 빨리 갔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올해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시즌이었다. 4개 메이저대회 가운데 세 차례 '톱 5'에 들었고 대회마다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을 다퉜다. 내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자신이 생겼다.

-삼성월드챔피언십에 별다른 느낌은 없나.

▲너무나 기억이 또렷하다. 많은 추억거리가 있는 대회이다. 이 대회 때문에 드롭하는 연습도 많이 하게 됐다(웃음).

-지난 여름에는 무척 힘들게 보냈는데.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게 아니냐. 올해 경험으로 경기일정을 짜는 것도 배웠고 컨디션을 조절하는 방법도 알게 됐다.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작년에 비해 실력이 늘었다면 어떤 부분인가.

▲경기의 일관성이 좋아졌다. 내년에도 경험을 더 쌓게 되면 한층 원숙해지리라 기대한다.

-남자 대회는 계속 나갈 생각인가.

▲물론이다. 내가 오랫동안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하룻밤 사이에 꿈을 성취하리라곤 생각지 않는다.

-남자대회 출전에 곱지 않는 시선이 많은데.

▲ 개의치 않는다. 그만큼 나한테 관심이 많다는 뜻 아닌가.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연합뉴스

"제2의 박주영 만들겠다"

조동현 청소년축구감독
최종 엔트리 30명 확정

"아시아 무대를 제패하고 제2의 박주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전통의 강호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사령탑으로 잔뼈가 굵은 조동현 19세 이하(U-19) 청소년축구대표팀 감독이 오는 29일부터 인도에서 열리는 2006 아시아축구연맹(AFC) 청소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야심찬 출사표를 던졌다.

조 감독은 신영록(수원), 이상호(울산), 심영성(제주), 이현승(전북), 김동석(서울) 등이 포함된 예비 엔트리 30명을 발표했다.

이번 청소년대표팀은 예전에 비하면 '스타급'이 적은 편이다. 2002년과 2004년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연거푸 제패한 한국 청소년대표팀은 그동안 최성국(울산), 정조국, 박주영(이상 서울) 등 국가대표팀의 주축이 될 만한 스타들을 길러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른바 '박주영급'의 선수가 눈에 띄지 않는다.

조동현 감독은 이에 대해 "이번 대표팀에는 아직 빅 스타는 없다. 그렇지만 이번 대회를 마치고 나면 제2의 박주영, 최성국으로 불리는 재목을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 짧은 패스에 의한 템포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게 강점이라고 조 감독은 설명했다. 단 번에 시선을 사로잡을 스타는 없어도 대다수가 테크니션으로 구성돼 '팔색조 전략'을 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는 "아시아 무대는 당연히 3연패가 목표이고 내년 세계선수권대회도 기대해달라"고 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인도와 한 조에 속해 10월29일부터 11월2일까지 인도 콜카타에서 조별리그를 치른다. 내년 6-7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U-20 월드컵) 출전 티켓은 4장이 걸려있다.

젊은 태극호는 오는 16일부터 선수들을 소집해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 뒤 23일 인도로 출국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 여자축구 정정숙
'올해의 여자선수' 후보

한국 여자축구대표팀 간판 공격수 정정숙(24·대교)이 아시아축구연맹(AFC) 2006 '올해의 여자선수'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AFC는 11일 홈페이지(www.the-afc.com)를 통해 '2006 AFC 어워즈' 13개 시상 부문 후보자를 발표한 가운데 '올해의 여자 선수' 부문에 정정숙을 지목했다.

AFC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이 올해 AFC 여자 아시안컵 대회에서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했지만 정정숙의 폭발적인 골 결정력 만큼은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함에 부족함이 없었다"며 "이 대회에서 7골을 기록해 공동 득점왕에 오른 정정숙은 태국과 경기에서 6골을 터트리는 등 개막전 결장에도 불구하고 2경기에서 득점왕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정숙과 함께 길선희, 리금숙(이상 북한), 마 시아오쉬, 장 얀루(이상 중국) 등이 함께 후보로 선정됐다.

세계역도선수권 2연패 장미란 귀국

한국 역도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를 달성한 장미란(23·원주시청)이 11일 오후 대한항공편으로 개선했다.〈사진〉

장미란은 지난 8일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벌어진 여자 최중량급(+75kg) 용상과 합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작년 카타르 도하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당초 9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에서 갈아탈 비행기를 놓쳐 이틀을 더 묵었다.

장미란은 바로 태릉선수촌에 들어가 다른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훈련할 계획이다.

전국체전과 아시안게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새도 없다. 장미란이 출전할 여자 최중량급 전국체전 역도 경기가 22일로 코앞에 있다.

장미란은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아시안게임에서 무슈앙슈앙(중국)과 두달만에 재대결을 벌여 명실상부한 세계 1인자로 우뚝 서려한다.

스포츠중계

12일(목)

▲메이저리그 챔피언십 시리즈(08 : 00·Xports)

▲WBF 세계여자프로복싱 챔피언스 내셔널리그(18 : 00·Xports)

▲프로농구 시범경기〈동부-KT&G〉(18 : 50·SBS스포츠)